

통영명품 진주산업 육성전략

강석중 · 최병대

국립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서론

진주는 살아있는 보석으로 그 수요가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소량의 천연산 진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양식산 진주로서 일본 및 중국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양질의 진주 양식어장 적지가 있고 노동력도 풍부하여 적절한 기술만 개발되면 세계적인 양식진주의 생산지가 될 수 있어 매우 기대되는 양식품종이다.

지난 40년간 이의 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현재까지도 1차사업단계의 기술을 면치 못하고 있다¹⁾. 우리나라의 양식기술 중 굴, 피조개 등의 패류양식은 그 기술이 일류이고, 생산도 세계적인데 비해 유독 진주양식만이 양식장의 숫자가 매년 감소 이유는 일본인에 의한 기술습득이 여의치 않고 국내 업자들의 자본영세성, 월동문제 그리고 진주양식의 내재적인 문제점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 연구들이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성패 및 치패의 양성 또는 월동시험^{1), 2), 3)} 유생조사 및 채묘시험^{2), 4), 5)}, 먹이생물^{6), 7)}, 부착생물⁸⁾ 그리고 진주생산에 관한 조사³⁾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시험, 조사 결과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의 진주양식은 희망적이다. 그러나 기술 개발에만 치우쳐 산업으로의 육성으로는 적극적이지 못해 진주양식업은 초기단계에서 탈피할 수 없는 실정이 계속되고, 한국의 진주산업은 거의 침몰위기에 처해져 있다.

이에 지역에 있는 지방국립대학은 지역산업의 미래에 기여코자 2004년 9월에 산업자원부지정 지역혁신특성화사업(RIS)으로 시작된 국립경상대학교 RIS사업단은 '통영명품 진주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적·경영학적 애로사항해결'을 추진전략화 하고, 대학이 혁신리더그룹이 되어 참여기관들을 중심으로 산·학·관·연의 네트워크체제를 유지하면서 혁신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동안의 RIS사업단에서 수행한 1차년도 사업결과를 소개한다.

본론

1) 지역혁신 특성화 사업(RIS)의 개요 및 특성

지역혁신특성화사업은 산업자원부에서 3년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지역혁신 주체인 산·학·연의 협력부족과 지방주도의 새로운 지역혁신시스템의 조기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 보다는 사업화 가능하고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시 하며, 지역 내에 존재하는 연구기관, 교육기관, 비즈니스지원기관, 기업, 비영리단체 간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사업이다.

2) 통영진주 산업의 문제점 및 대응

통영명품 진주의 품질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 세계 유명 보석시장에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생산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대부분 일본진주로 잘못 알려져 있으며, 종합적인 산·학·관·연의 네트워킹 부재 및 마케팅의 부재가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진주생산방식에서 월동장이동(통영-제주도)에 의한 고비용 지출과 양식기간 장기화(4-5년)에 의한 사업부담이 크고, 투자금액 대비 순이익율이 저조하며, 국내 원주가공기술 부족에 의한 일본에서의 고비용 역수입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진주생산과정에 대한 산·학·관·연의 이해와 지속적인 네트워킹에 의한 대처방안 마련, 지속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통한 통영명품 진주의 인지도를 높여 세계시장으로 판매를 확대화 시키는 것이다.

3) 사업내용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네트워킹, 기업지원, 인력양성과 참여기관의 기술개발 및 마케팅으로 지속적인 네트워킹을 통한 협력체계구축과 통영명품 진주의 인지도 상승과 본격적인 판매전략을 구축하는 것이다.

결론

1차년도 RIS사업 결과, 기술개발 부분에서 진주원주가공기술은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국내 최초로 통영산 원주를 우리기술로 가공 후 진주의 본 고장인 일본에 2억원(3관)을 수출하였고, 진주치패용먹이생물은 3억원의 판매고와 진주원주를 채취 후 남는 부산물로부터 기능성식품소재를 개발하여 1.5억원의 판매 등 순수 RIS사업결과물로 6.5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또한, 지역연구소로부터 우량종패 40만미를 무상 분양하여 대어민 기업지원을 하였다. 마케팅 사업에서는 국내 및 국외의 연예인(김희선, 성룡)을 통영홍보대사로 임명하여

통영진주를 국내외에 활발히 홍보하였으며, 통영의 지역관광문화축제(통영한산대첩, 운이상국제음악제)와 연계하여 복합산업으로 발전시켰다. 이로써, 수산업은 1차산업이고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에서 1차, 2차, 3차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지역의 향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전모델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1) 해양연구소, 1985, 인공진주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 과학기술처, BSPG 00027-89-3, 213 P.
- 2) 해양연구소, 1986, 인공진주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II). 과학기술처, BSPG 00032-116-3, 312 P.
- 3) 해양연구소, 1987, 인공진주양식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보고서(III). 과학기술처, BSPG 00042-159-3, 607 P.
- 4) 변충규 · 김득산 외 1986, 진주조개(*Pinctada fucata*)의 치패생산 및 양식에 관한 환경학적연구.(I), 조기발생과 성장, 제주대해자연보 10, 45-56.
- 5) 배종태, 1985, 한산만에서의 진주조개(*Pinctada fucata*) 부유유생 출현시기와 생존율. 부산수대 석사학위논문, 27 P.
- 6) 홍재상 · 허정택 외, 1988, 진주조개(*Pinctada fucata martensii*)의 양식어장 환경과 먹이생물, Ocean. Res. 10(1), 67-77.
- 7) 김일옥 · 이삼무, 1971, 진주양식에 관한 연구Ⅲ. 진주양식장 환경조사 성적보고, 수진연구보고 8, 75-92.
- 8) 제종길 · 홍재상 외, 1988, 진주조개(*Pinctada fucata martensii*) 양식어장의 부착생물에 관하여. Ocean Res 10(1), 85-105.